

연 수 구 가 전 국 최 초

자가형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확대 운영

자가형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란, 재활용품 배출과 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을 정착해 자원 재활용률을 향상시킵니다.

재활용품은 이렇게 분리배출해 주세요!



보급되는 전용봉투의 색깔에 맞춰 쏙쏙 담아주세요.

비닐류-보라색 / 무색페트병-노란색 / 종이류-초록색 /
고철·캔·플라스틱·병류-파란색



전담 관리인이 직접 운영합니다.

자가형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관리하고 분리배출 방법을 지도해줍니다.



재활용품 전용차량(비압착식)을 운영합니다.

10대(3.1톤 6대, 1톤 4대)



배출시간

일몰 후부터 새벽 4시 이전,
자가형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지역은 24시간 배출 가능



재활용품 배출 횟수가 확대됩니다.

주1회 → 주3회

배출일	동
일, 화, 목	옥련동, 연수동, 송도1동, 송도4동, 송도5동
월, 수, 금	청학동, 동춘동, 선학동, 송도2동, 송도3동

※재활용품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봉투에 배출

연수한마당

2020 YEONSU HANMADANG VOL. 296



연수 LIVE

연수의 행복한 미소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함박눈이 연수를 채웁니다.

12
Decembe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2020. Vol. 296

연수한마당

어휘
quiz? ✓!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항당무계한 소문이 떠돈다.
항당무계한 소문이 떠돈다.

바로 잡습니다

연수한마당 속 국·영문에 대한 오·탈자 및 오류를 발견한 경우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제보 기한 2020년 12월 10일까지

메일 yeonsuhanmadang@korea.kr

9p
추진되건가요(X) → 추진된건가요(O)
박*신, 임*이 님 제보

27p
매실짱아찌(X) → 매실장아찌(O)
김*범 님 제보

외래어 표기 오류
이*경 님 제보

영문 표기 오류
박*주, 황*숙 님 제보

모바일 연수한마당 신청

<연수한마당>은
구민과 명예기자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어휘퀴즈 정답]

정답 : 항당무계한 소문이 떠돈다.

‘말이나 행동이 터무니없다’라는 의미로는

‘항당무계’가 맞는 표현입니다.



Ch. 18



Ch. 30

Ch. 03	프롤로그	따뜻한 미소가 반기는 길
Ch. 04	연수 LIVE E	함박마을 가득, 함박미소 가득
Ch. 10	연수 LIFE E	컴컴한 지하에서 Come, Come한 공간으로
Ch. 14	연수사람	늦깎이 만학도 행복 짓기
Ch. 16	여기어때	겨울을 견뎌낼 스포츠 공간
Ch. 18	동네 한 바퀴	톡톡 튀는 송도3동 한 바퀴
Ch. 20	연수 On Air	연수구와 함께하는 SNS 3분 영화제 with Songdo
Ch. 22	우리동네	동별 이슈
Ch. 24	구정소식	구정 이슈
Ch. 25	의정소식	의정 이슈
Ch. 26	연수게시판	연수구 육아, 행정, 복지, 환경
Ch. 30	연수 SNS	문화가 꽃피는 연수의 꿈이 현실이 되다
Ch. 32	문화마당	도서관 행사 및 문화 행사 안내
Ch. 34	Yeonstargram	아기탄생기념 축하사진
Ch. 35	다른그림찾기	독자 구독 이벤트

E 외국인을 위한 영문지면(Eng.ver)

Ch. 04	Yeonsu LIVE E	Hambak Village, Hambak Smiles
Ch. 10	Yeonsu LIFE E	A Rarely-Visited Basement Reborn to a Welcoming Space
Ch. 29	Info&Event E	Info&Event
Ch. 31	Tip&Talk E	Exploring Global Culture and Education

구독 안내

구정소식지 ‘연수한마당’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구독을 원하는 분은 메일 또는 전화로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연수한마당은 www.yeonsu.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문의 연수구청 홍보미디어실 ☎ 749-7402 메일 yeonsuhanmadang@korea.kr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연수구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수한마당은 www.yeonsu.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발행처 연수구 홍보미디어실 발행일 2020년 11월 25일 발행인 연수구청장

편집인 부구청장 행정간행물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기획·디자인 웨스트코(주)

▶ 함박마을 골목



따뜻한 미소가 반기는 길

따사로운 햇볕은 골목의 곳곳을 비추고,
선선한 바람은 기분 좋게 나무를 에워싸고,
포근한 대지는 너른 품을 안겨줍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언제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매일 당신을 향해 따뜻한 미소로 반기는
아름다운 길에 언제고 함께 해주세요.

관련기사 : 연수 LIVE Ch. 04



함박마을에 찾아 온 따뜻한 변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매일 다른 하루를 만들어간다. 비단 함박마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허나 약 14개국의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마을이 조금 더 특별한 건 사실이다. 서로 다른 언어, 생김새, 문화는 모두에게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다. 함박마을은 ‘이해와 배려’로 그 숙제를 풀어가고 있다. 어제의 이해는 오늘의 배려가 되고, 내일의 함박미소를 만든다. 우리는 함박마을의 함박미소를 포착했다.

함박마을 가득 함박미소 가득



Hambak Village, Hambak Smiles

A Warm Future for Hambak Village

In Hambak Village, people from various walks of life gather and create their unique stories every day. Though they may not only be stories of Hambak Village, this village is truly special with residents hailing from 14 different countries. Living together with different languages, appearances, and cultures has been challenging for everyone in the village, but its residents are overcoming this problem with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neighbors leads to compassion for one another, which soon blossoms into shared smiles of happiness. We captured some of these village residents' 'Hambak' smiles.



거리를 채우는 이해의 마음

3천 700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함박마을에는 총 1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그 중 4천 600여 명이 고려인과 외국인이다. 약 절반의 숫자가 이주민인 만큼 이 마을은 독특한 외관을 띄고 있다. 거리 곳곳에는 이색적인 글자의 간판이 즐비하고, 다양한 언어와 각국의 음악이 거리를 채운다. 각기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우여곡절이 없었을까. 문화 차이가 크고 언어 장벽도 높아 소통이 어려웠고, 치안이 약한 어두운 골목길도 문제였다. 점 하나로 뜻이 달라지는 글자처럼 생각도 마찬가지다. 다르다는 것을 내세우면 큰 벽이 되지만,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면 매력이 된다. 가게마다 특성에 맞는 글씨로 간판이 걸리기 시작했고, 거리는 깨끗해졌다. 비단 외관만 바뀐 것이 아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어서와 함박마을은 처음이지?’를 통해 민과 관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이 힘을 합쳐 함박마을의 다름이 색다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낡은 담벼락에는 울긋불긋 예쁜 벽화가 피어나기 시작했고, 어두운 골목마다 가로등의 은은한 불빛이 가득해졌다. 주민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교류를 시작했다.

Hearts of Understanding Filling the Streets

Hambak Village has around 10,000 residents in 3,700 households. About 4,600 of them are Koryo-saram and foreigners. As about half of the total population is immigrants, the village's unique exterior immediately stands out. Signboards with foreign letters are lined up throughout the streets, full of various languages and exotic music. As the village embraces such diverse backgrounds, residents have experienced both trivial and serious problems. Cultural differences were difficult to overcome, and language barriers made it frustrating for the residents to communicate. Dark alleyways with inadequate security were another problem. However, just like words that change meaning with a single stroke, the residents could easily improve their attitudes towards one another through a little effort. Our differences may create barriers between us, but recognizing and understanding those differences gives them a whole new charm. By appreciating their differences, the residents began to transform their village into a melting pot of diversity. Beautiful murals began to bloom on the old walls, and streetlights illuminated the alleys. Signs in different languages began to show off the residents' personalities. All the streets of the village became brighter and cleaner. It's not just the appearance that has changed; the residents have also begun exchanges to better understand each other.



마을놀이 양성교육



마을을 채우는 배려의 마음

함박마을 주민은 공생으로 가기 위해 스스로 제안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공생으로 이어지기까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함박 웃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올해 9월부터 함박마을 곳곳에 변화를 일으켰다. 함께 모여 마을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공통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웃과 함께 마을을 걸으며 주민이 직접 마을 지도를 만들고, 각국의 전통음식을 배우고 나눠 먹으며 정을 쌓았다. 골목 한편에서는 모두가 비석치기와 딱지치기, 고누놀이 등을 하며 왁자지껄 웃음꽃을 피웠다. 누군가에겐 새로운 기억을, 누군가에겐 아련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함께했다. 그래서일까. 최근에 함박마을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국가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함박마을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는 것. 일렐로 늘어난 거리에는 세계음식문화거리와 고려인 역사문화광장이 조성되고, 세계문화상품 창작소가 생겨나 함박마을 고유의 매력을 더욱 증감시킬 계획이다. 주민 스스로가 키워낸 하나의 기적이자, 진정한 공생이 머지않아 열릴 것이다.



선진지답사



요리교실

A Village Bursting with Hearts of Compassion

The residents of Hambak Village began to propose a path for living together. They thought that a genuine neighborhood requires sufficient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for one another. To create a space where everyone can share authentic smiles, they started making changes in Hambak Village from September this year. Residents often gathered to talk about the development of the village and share common stories. Neighbors explored the village together to make a village map and shared traditional foods of their home countries. In the corners of alleys, children laughed with delight while playing traditional Korean games. Hence, the residents have kept their nostalgic memories while sharing new experiences with neighbors in their new home. Their efforts have recently been rewarded with good news: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a national project, selected Hambak Village as one target site. This project plans to introduce the World Food Culture Street, the History and Culture Plaza of Koryo-saram, and the World Cultural Product Center to this village. These new attractions will add vitality to the unique charm of Hambak Village. The day where the residents' beautiful miracles will lead to a genuine neighborhood is not far off.

‘어서와 함박마을은 처음이지?’

사업명 함박마을 글로벌 공생 프로젝트
목 적 내·외국인 화합을 통한 함박마을 공동체성 회복
사업비 총 160백만 원
내 용
 -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함박마을경로당 2층 리모델링)
 - 마을밥상·마을탐방·마을교육 프로그램
 - 도시재생 관련 주민프로젝트팀 운영, 간담회 개최





Lee Yong-han

“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큰
출발점이죠.
”

안녕하세요, 함박마을 공동체 대표 이용한입니다. 오랫동안 함박마을에 거주하며 마을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요즘은 뉴딜사업 선정이라는 경사스러운 일이 생겨 어깨가 무거워진 느낌도 들지만, 그만큼 기쁘죠. 상생할 수 있는 마을이 되기 위해 큰 노력을 해야겠다는 결심도 굳어졌고요. 함박마을에는 참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서로 충돌하는 문화도 많고, 언어의 장벽으로 소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어울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함박마을 주민들을 위해 마을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로 하던 딱지치기, 비석치기 같은 놀이가 이주민에게는 새로운 놀이가 되어 즐거워하더라고요.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들도 옛 추억에 잠겨 관심을 보이셨고요. 서로의 관심과 흥미를 끝만한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그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문제해결에 맞닥뜨려야 하지만, 서로를 이해한다면 분명 빠른 시일 안에 함께 웃을 날이 많아지겠죠.

“A Change in Perception is the Biggest Starting Point.”

Hello, I am Lee Yong-han, Head of the Hambak Village Community. Having lived in Hambak Village for a long time, I have a special affection for this village. Not long ago, our village heard the terrific news of being selected for the New Deal project. Though I feel a great weight on my shoulders as the head of this community, I couldn't be happier with the news. There is also a growing desire to work harder to create a village where all residents can live happily. Hambak Village is home to many residents from various countries. There have been cases of cultural misunderstandings among the residents, and language barriers make communication difficult. So, I saw the need for a culture where residents could understand each other. Not long ago, I ran a village play program for children in Hambak Village. I taught them how to play the slap-match and stone games I used to play when I was young. The children enjoyed the games, which were entirely new to them. The elderly also watched the children playing the games, which must have reminded them of their old memories. I thought of making small changes by having the villagers share cultural activities that all generations could enjoy together. We will face many problems in the future, but if the residents understand each other and work together, there will be more days full of shared laughter.



Kim Ja-rra

“
서로를 배려하는
것만큼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

저는 올해로 한국에 귀화한 지 9년차가 된 김자라입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이곳 인천까지 오게 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처음 한국에 오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지런하게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되건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배우는 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뤄져야만 진정한 배려와 상생이 가능하고요. 함박마을에 있는 ‘너머인천고려문화원’ 박봉수 원장님을 만나게 된 후, 좋은 기회로 함박마을 주민들의 소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민 간에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인해 오해가 자주 생겨서 중간에서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죠. 저로 인해 함박마을 주민 모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뿌듯할 거 같아요. 제가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 저는 함박마을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노력하면, 함박마을에는 더 웃음꽃이 피지 않을까요?

“Learning is as Important as Caring for Each 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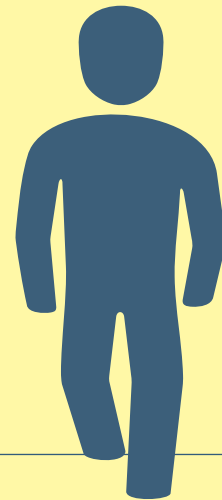
My name is Kim Ja-rra. I got Korean citizenship nine years ago. I met my husband and moved to Incheon. Since I was a child, I spent my childhood with friends from various countries. As a result, I naturally learned to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Since my first decision to come to Korea, I have been diligently learning Korean culture and language. No matter what country you live in, I think it's essential to learn about that country's culture and language. Only with such efforts and understanding can we become good neighbors. After getting to know Park Bong-soo, Director of the Neomeo Koryo-Saram Culture Center in Hambak Village, I have been helping Hambak Village residents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y interpreting. Misunderstandings often arise due to their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so I try to help them resolve any misunderstandings as a mediator. I would be very proud of myself if the residents could understand each other with my help. I am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help my neighbors. It would be great for Hambak village residents to learn each other's culture and language to understand each other. If everyone makes the effort, there will be more laughs to go around in Hambak Village!



507문화 벙커

A Rarely-Visited Basement Reborn to a Welcoming Space

컴컴한
지하에서
COME,
COME한
공간으로



‘507문화벙커 생활문화센터’ 개관

낡은 공간이 새롭게 변신했다. 어둡고 컴컴한 연수 고가 지하보도가 ‘507 문화벙커’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된 것이다. 연수구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다시금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재촉할 ‘507문화벙커 생활문화센터’를 소개한다.

Opening of 507 Cultural Bunker Life and Culture Center

An old and obscure space has been renovated. The dark underground walkway of Yeonsu Overpass is reborn under the name of 507 Cultural Bunker, welcoming residents with various facilities to enrich their cultural life. Let's take a peek at the 507 Cultural Bunker Life and Culture Center, which will become busy again with many visitors.

낡은 공간의 재탄생

Rebirth of an Old Space

노후 되어 발길이 끊기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던 연수 고가 지하보도가 구민을 위한 ‘507 문화벙커 생활문화센터(이하 507 문화벙커)’로 탈바꿈했다. 1994년 준공된 연수 고가 지하보도는 세월이 흐를수록 주변 이동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가 점차 줄었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야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구민만이 이용해왔다. 이에 연수구는 지역 내 관심과 발길이 끊긴 버려진 공간을 활용하는 ‘문화발걸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진달래문화센터에 이어 두 번째 생활문화공간을 조성기로 했다. 공사기간은 1년 6개월가량이 소요됐으며, 지상일부 통행로를 제외한 모든 공간이 공연 동아리 연습공간, 작품 전시공간 등 다양한 구민편의시설로 채워졌다. 우리에게 외면 받던 낡은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되어 우리 품으로 다시금 돌아온 것이다.

The underground walkway of Yeonsu Overpass, once obsolete and exposed to safety accidents, has transformed into the 507 Cultural Bunker Life and Culture Center (in short, 507 Cultural Bunker) for residents. This space had been a useful walkway since its completion in 1994, but the number of users gradually decreased with other mobility facilities growing nearby. This now degraded space not only spoils the city's appearance but also poses a risk of safety accidents at night, leading to little use by residents. Yeonsu-gu has been working on the Cultural Footstep Project to recycle places left out and abandoned in the city. Following the Azalea Cultural Center established in 2017, 507 Cultural Bunker has opened as the project's second achievement. Construction took about one year and six months. Except for some passageways on the ground, all spaces consist of various convenience facilities for residents, such as a performance club practice room and exhibition space. This old, long-neglected location has returned as a living cultural space that enriches our lives.

공사기간 : 2019. 6. 15. ~ 2020. 10. 22. ※ 개관 : 2020. 11. 20.

사업규모 : 지하1층 (연면적 467㎡) 및 지상일부 (야외무대)

사업비 : 1,000,000천 원 (국비 4억, 시비 3억, 구비 3억)

※ 생활SOC공모사업 선정

The Center at a Glance : Construction Period: June 15, 2019 - October 22, 2020

※ Opening: November 20, 2020

Project Size : One floor in the basement (total area 467㎡) and part of the ground (an outdoor stage)

Project Cost : 1 billion won (400 million won for national expenditure, 300 million won for municipal expenses, and 300 million won for the gu-office expenses)

※ A selected project from the Life SOC Contest



문화와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

507 문화병커는 구민의 자율적인 문화활동과 생활문화동아리와 같은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학습과 문화교류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문화프로그램 제작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연수문화재단 위탁을 통해 연수구민의 문화 수준을 높여줄 다양한 구민밀착형 생활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은 개관 후 연수문화재단 홈페이지(www.ysfac.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커뮤니티카페 Community cafe

주민들이 마주치고 커뮤니티가 발생하는 개방형 공간
Open space where residents meet and community fo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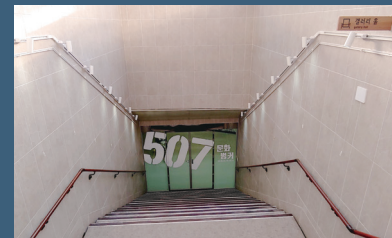
공동체사물함 Community Lockers

센터에서 활동하는 동아리의 물품,
악기 등 공동수납공간
Shared storage for club items
and musical instruments, etc.



다목적실 Multipurpose Room

동아리 연습, 회의, 학습, 영상, 공연 등
다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
Multipurpose space for club practice, meetings,
education, videos, and performances



갤러리홀 Gallery Hall

그림, 사진 등 액자형식 작품 전시 공간(계단 공간 활용)
Exhibition space for framed works such as paintings
and photos (uses staircase space)

야외무대 Outdoor Stage

공연, 전시, 토론 등 각종 행사에 맞게 공간 연출
Open space suitable for various events such as
performances, exhibitions, and discussions



공연연습실

Performance practice room

연극, 무용, 댄스 등 공연 동아리 창작
활동 및 공연 연습 공간
Performance practice space for
theater, traditional and modern
dance, and other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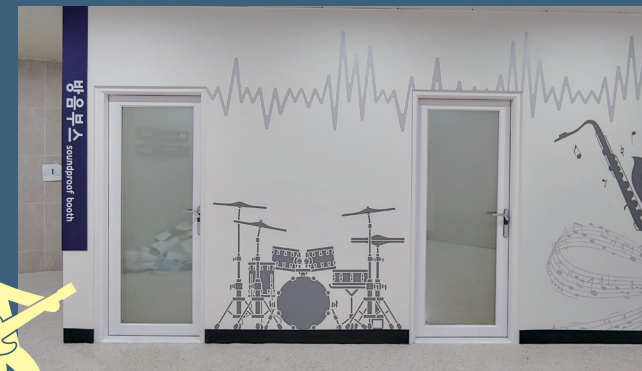


기타시설 Other Facilities

화장실, 복도, 엘리베이터, 기계실,
탈의실, 창고 등 구비
Restrooms, hallways, elevators,
machine room, changing rooms,
storage,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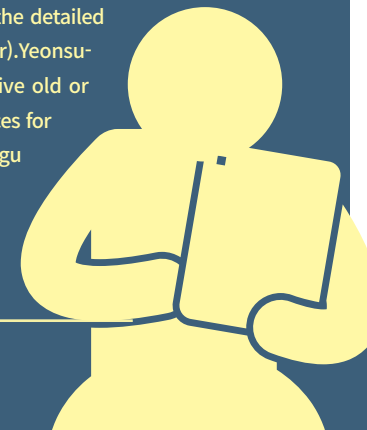
방음부스 Soundproof Booth Hall

드럼 등 별도 방음설비가 필요한 악기 연주 연습공간
Space for practicing musical instruments that require
separate soundproofing equipment (ex. for drums)



Space for Your Cultural Life and Relaxation

507 Cultural Bunker plans to provide learning and cultural exchange opportunities to promote community development related to residents' voluntary lifestyle and club activities. The Yeons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YSFAC), which commissions this bunker, will develop and operate art programs that enrich and satisfy the residents' cultural tastes with its abundant experience and expertise in producing cultural programs. After opening, you can check the detailed schedules on the YSFAC website (www.ysfac.or.kr). Yeonsu-gu will continue the Cultural Step Project to revive old or neglected underground spaces to create "rest spaces for residents' daily lives to become culture." Yeonsu-gu will always provide residents with diverse cultural activities and opportunities for rest, even in the post-COVID era.



507 문화병커 생활문화센터 이용 안내

이용대상 : 연수구민 누구나
장 소 : 연수구 청학동 507, 연수동 651 경계
연수 고가차도 밑 지하보도

운영시간 :

월	화~금	토~일
정기휴관	09:00 ~ 21:00	09:00 ~ 18: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문의 : 연수문화재단 생활문화팀
(☎ 070-4169-6462)

507 Cultural Bunker Life and Culture Center Guide

Eligibility : Yeonsu-gu residents

Venue : The underground walkway of Yeonsu
Overpass, between 507 Cheonghak-dong and
651 Yeonsu-dong, Yeonsu-gu

Operating Hours :

Mon	Tues ~ Fri	Satur~Sun
Closed	09:00 ~ 21:00	09:00 ~ 18:00

※ Closed: Mondays, national holidays, and
public holiday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
Facility Rental

Inquiries : - Life and Culture Team, Yeons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 070-4169-6462)

늦깎이 만학도 행복 짓기

남인천중·고등학교 졸업생 김경숙 씨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때를 놓치면서 학교와의 인연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던 김경숙 씨 (57세). 학력이 주는 좌절감은 김경숙 씨의 커다란 꿈 앞에서 작아졌다. 그는 현재 인하대학교 (산업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늦깎이 대학생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배움에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 바로 그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글·사진 박영희 연수한마당 기자



김경숙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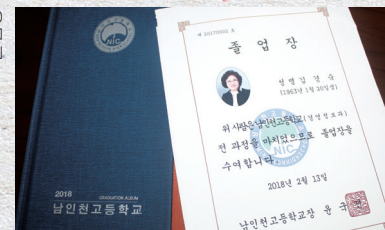
학 교 는 제 인 생 최 고 의 선택 이 있 어 요 .

배움에 대한 절실함을 가슴에 품은 채 수십 년을 살아온 김경숙 씨의 삶은 원망과 후회로 가득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을수록 공부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기쁨과 행복감에 젖어 살아도, 그녀의 공허한 가슴은 채워지지 않았다. 남들 앞에 서는 게 두렵고 자신이 없었다. 학력인정학교 남인천중·고등학교 정문 앞에 와서 머뭇거리다 발길을 돌리기를 여러 번. 용기가 없었고 부끄러운 마음이 앞섰다. 누구보다 땀뻑하고 바르게 살아왔건만 배움의 문턱은 그녀를 움츠러들게 했다. 서글프고 마음이 아팠다. “공부를 안 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됐어요.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고요. 48살에 중학교 입학할 하기 위해 학교 정문 앞까지 갔다가 집으로 되돌아오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용기를 내서 50살 때 중학교에 입학했지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늘 함께한 남편의 지지와 격려는 그녀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되었다.

제 인 생 의 주 인 공 은 자 자 신 입 니 다 .

“우리 아들 고3 때 저는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아이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말해주니까 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반장을, 고등학교 때는 전교 회장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학우들과 함께 아침밥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주먹밥을 나누어주는 등 봉사활동도 많이 했지요. 무엇보다 몰랐던 영어 공부를 하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어요. 남편에게 더 고마운 건 중학교 입학부터 지금까지 등교할 때마다 자동차로 데려다줍니다. 덕분에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결석한 적이 없어요. 늘 감사하지요.”라며 남편과 자녀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이제 그는 어엿한 대학생으로 캠퍼스의 낭만을 맛보며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다. “저처럼 배움에 절실한 분들이 계신다면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필요하지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세요.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즐긴다는 그녀는 ‘전공 공부를 통해 배운 전문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라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종교장



전공서적



수학여행사진



성인교육의 전당
'남인천중·고등학교'

위치: 남구 학익1동 686-8

원서접수: 매년 9월부터 선착순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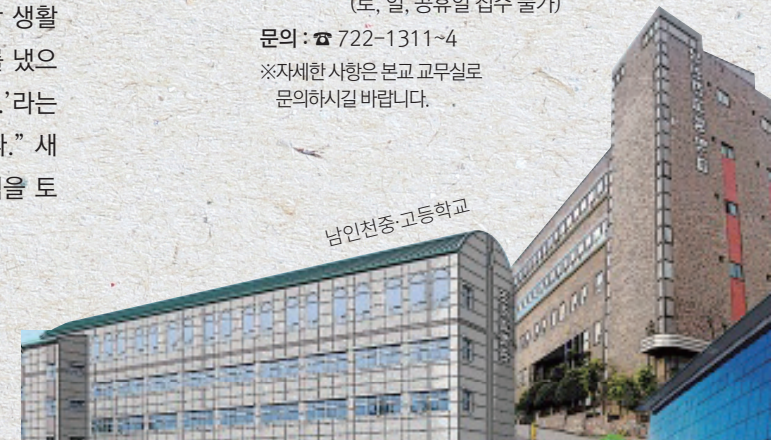
접수시간: 평일 09:00~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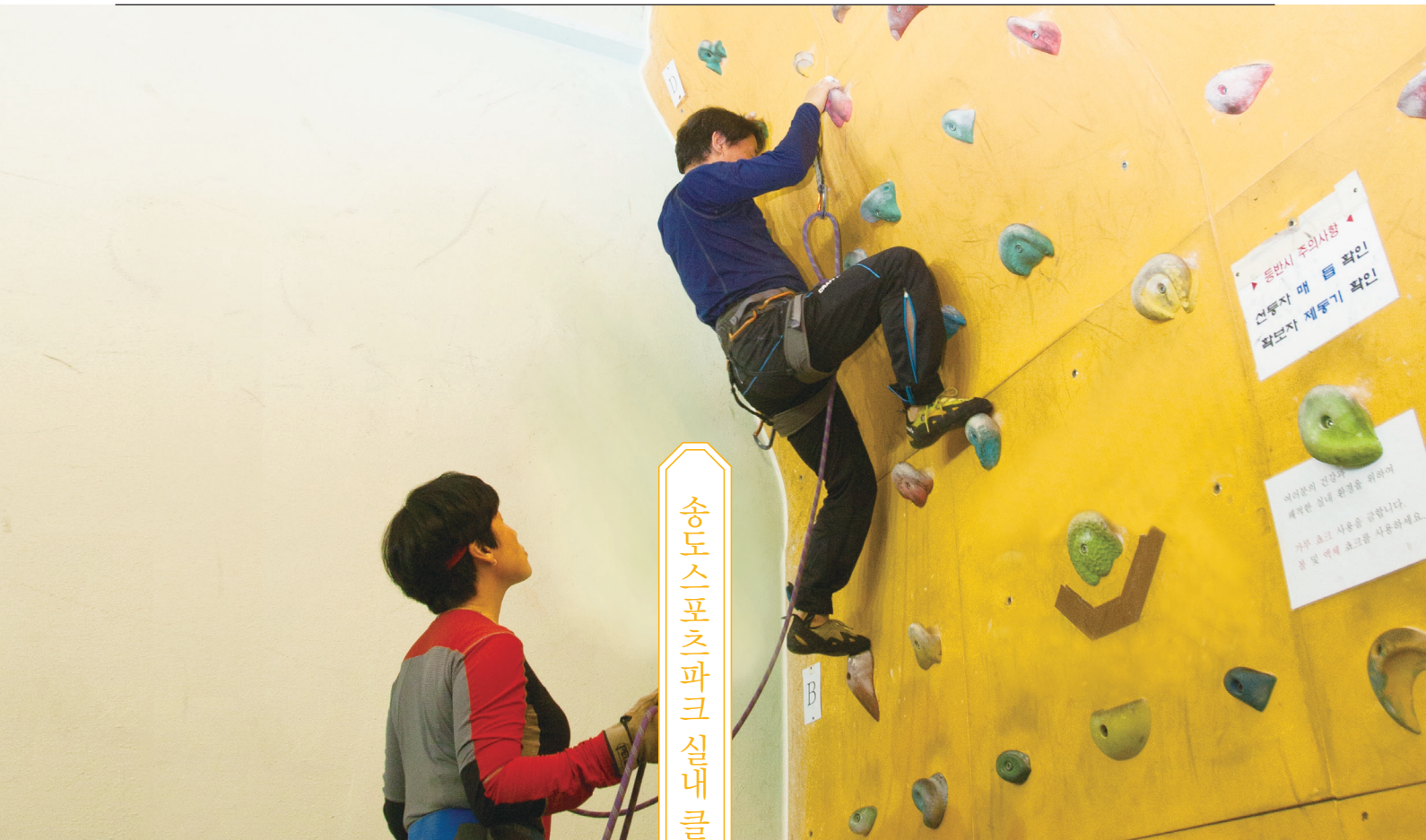
(토, 일, 공휴일 접수 불가)

문의: ☎ 722-1311~4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남인천중·고등학교





송도스포츠파크 실내 클라이밍

여기어때.

우리의 겨울은 뜨겁다.
겨울을 견뎌낼 스포츠 공간!

날이 갈수록 바람은 매섭고 기온은 뚝뚝 떨어진다.
야외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버겁고, 운동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이 계절. 추위에 맞서 뜨거운 땀을 흘릴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한다.

글·사진 조기숙 연수한마당 기자

오를수록 즐거운

인천 유일의 실내 클라이밍장이 송도스포츠파크에 있다. 클라이밍은 몸 전체를 사용하는 전신운동으로, 꾸준히 할 시 몸의 근력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하지만 야외 암벽에서만 할 수 있던 운동이라 날씨와 공간에 제약이 많았다. 송도스포츠파크 실내 클라이밍장은 그 불편함을 해소하게 해준다. 암벽화와 운동복만 있으면 어느 계절이든 상관없이 하고 싶을 때마다 할 수 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개인의 실력에 따라 코스가 나누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운동이기에 실내 클라이밍 수업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도와주며 친목을 쌓아간다.

위치 : 연수구 인천신항대로892번길 50

문의 : ☎ 899-4864

홈페이지 : <http://www.eco-i.or.kr/sportsPark>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달릴수록 즐거운

드넓은 운동장을 무대로 공과 함께 달리는 재미가 가득한 축구. 하지만 겨울이 되면 팡팡 언 바닥과 바람 한 점 막아줄 수 없는 공간에 달리기란 쉽지 않다. 그럴 때는 풋살파크를 이용해보자. 건물 옥상 위 조성된 인조잔디장과 안전한 그물막이 조성된 동춘풋살파크에서는 계절과 상관없이 시원한 공기를 가르며 축구를 즐기는 이들이 많다. 다수의 인원과 즐기는 운동이라 공간 제약이 많던 축구를 이곳에서는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언제나 축구 생각이 간절해지면 동춘풋살파크의 문을 두드려 보자. 적은 인원이어도 좋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 뜨거운 겨울을 보내기에 이곳만큼 좋은 곳은 없다.

위치 : 연수구 앵고개로 266 롯데슈퍼 2층

문의 : ☎ 832-4708, 010-9028-0990

홈페이지 : <https://dcfs.modoo.at>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춘풋살파크



툇툇 튼는 송도3동 한 바퀴



송도국제도시의 동쪽에 있는 송도3동은 대학교 캠퍼스와 연구소, 바이오 기업 등 미래 첨단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다. 학문과 연구, 젊음과 첨단을 두루 갖춘 연구구의 핵심동력이 될 툇툇 튼는 송도3동을 한 바퀴 둘러보면 어떨까.

글·사진 박영규 연수한마당 기자



인천글로벌캠퍼스(IGC)

뉴욕주립, 조지메이슨, 겐트, 유타, 뉴욕패션기술대학교가 자리한 이곳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는 매일 인재가 양성되고 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세계 명문대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큼 커다란 인프라가 어디 있을까.

위치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문의 ☎ 626-0114

트리플스트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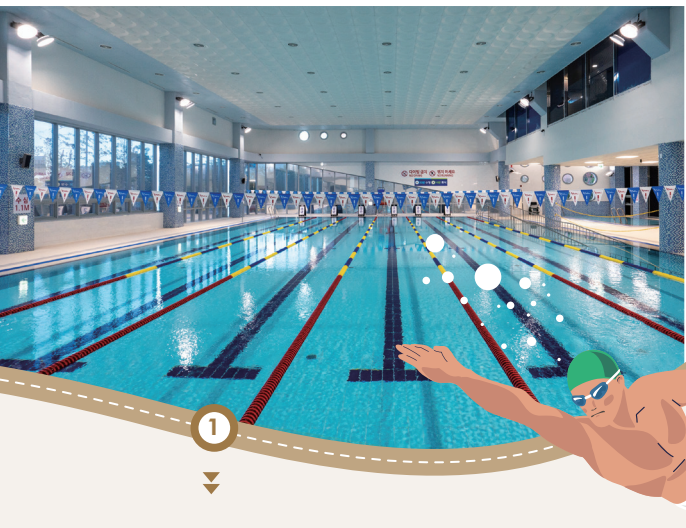
복합 문화 공간 트리플스트리트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이다.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있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알찬 하루를 이곳에서 보낼 수 있다. 다채로운 색감과 조형들로 눈이 즐거운 이 길에서 추억을 만들어 보자.

위치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33-1
문의 ☎ 310-9500

인천송도국제캠핑장

캠핑을 위해 많은 짐을 짊어지고 멀리 떠나지 않아도 된다. 송도3동에 위치한 인천송도국제캠핑장에서는 바다 향기를 물씬 맡으며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데크 캠핑과 카라반 캠핑까지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색다른 기억을 만들어 보자.

위치 연수구 지식기반로 60
문의 ☎ 456-2650
※2020.11~2021.04 시설보수로 임시 휴장합니다.
주간 산책은 가능합니다.



송도체육센터

연수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건립된 송도체육센터가 11월부터 일부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 체육시설로써 연수구민에게 새로운 활기를 찾아 줄 하루하루가 기대된다.

위치 연수구 송도과학로51번길 80
문의 ☎ 830-8067~9



글로벌파크(문화공원)

송도3동에서 가장 큰 공원인 글로벌파크는 미추홀공원에서 누리공원을 통해 이어지는 보행녹도 무장애길로 조성되어 있다. 따스한 날이면 이곳 푸른 잔디밭에서 도심 속 야외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위치 연수구 송도문화로120번길 12
문의 ☎ 456-2860



극지연구소

우리나라 유일의 극지 전문 연구기관인 극지연구소가 송도3동에 있다. 극지 연구를 통한 국가 경쟁력 형성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등을 연구하는 이곳에서는 미래의 다양한 가치들이 창출되고 있다.

위치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문의 ☎ 770-8633



▶ SNS 3분 영화제 with Songdo

연수구와 함께하는

SNS 3분 영화제 with Songdo

지난 10월 30일과 31일 이틀간 개최된 ‘연수구와 함께하는 SNS 3분영화제 with Songdo’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누구나 영화를 만들어 가는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영화제는 온·오프라인 모두 상영을 진행하며 연수구민의 눈을 즐겁게 만들었다. 그 뜨거웠던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1 온택트 영화제로 알린 시작

‘연수구와 함께하는 SNS 3분 영화제 with Songdo(이하 3분 영화제)’의 시작은 특별했다. 코로나19의 잠정화로 구민의 건강을 염려해 온라인 상영으로 그 시작을 알렸다. 연수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10월 23일부터 경쟁작과 연수마을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온라인 GV(Guest-Visit : 영화인과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또한 축하 인사말 상영 등도 포함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길 콘텐츠를 선보였다. 10월 29일까지 이어진 온라인 상영회에 이어 10월 30일, 송도체육센터 임시주차장에서 본격적인 개막선언이 울렸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극장으로 진행된 개막식은 낯설고 특별한 추억거리가 됐다. 선착순으로 자동차 100대를 한정 지어 운영된 개막식은 코로나19 속 안전한 거리두기를 지키며 진행되어 모두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놓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2 영광의 얼굴과 이색적인 시간

10월 31일, 연수구청 한마음광장에는 이색적인 풍경이 준비하게 늘어섰었다. 광장을 채운 텐트가 그 이유였다. 이번 3분 영화제가 코로나19 시대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이니만큼 독특한 콘셉트의 영화 상영으로 계획됐다. 자동차 극장에 이어 캠핑영화제로 탈바꿈한 3분 영화제의 밤은 영광의 얼굴들로 별을 수놓았다. 이번 3분 영화제 수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대상의 영예는 오른손 부상을 입어 다시는 사격을 할 수 없게 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이야기를 담은 ‘Kinygma’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에는 배우라는 꿈과 홀로 아이를 키우는 현실이 맞붙어 공존하는 이야기를 다룬 ‘야상곡’이, 감독상은 1970년대 인천 동구 만석동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제작한 ‘윈터 인 만석동’에 돌아갔다. 이번 3분 영화제는 자동차 극장, 캠핑영화제, 시상식 등 사전 신청을 통해 현장 참여한 350여명 외에 유튜브 생중계와 씨네허브 영화관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앞으로도 연수구에 그려질 다양한 이야기와 영화인들의 열정을 기대할 수 있던 뜻깊은 자리였다.



수상작 현황

대상 : kinygma

최우수상 : 야상곡

우수상 : 다가올 세상

감독상 : 윈터인 만석동 - 김다연
(winter in Mansukdong)

각본상 : 5+5

촬영상 : 무영인간

남우주연상 : 야상곡 - 류권하

여우주연상 : 낯선여자 - 주예은

집행위원 특별상 : 대리기사

심사위원 특별상 : 외면받는 유기동물

연수구 베스트작품상 : 마스크

연수구 특별상 : 호모폰 사피엔스

베스트 네티즌상 : family_아이들, 우리 아이들

입선작(9편) : 마스크왕, 천사들의 반란, 거래, 미주, 코로나 추적자, 드림셀러, family_아이들, 우리 아이들 생일, 이태백의 대운동회 (이상 9편)



+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연수마을TV 홈페이지
tv.yeonsu.go.kr 또는 유튜브에
‘연수마을TV’를 검색해보세요.



연수마을TV



유튜브



살기 좋은 연수구 우리동네

송도3동

옥련2동

연수1동

연수3동

**따스한 마음은 서로의 이음이 되어
오늘의 우리를, 우리의 연수를,
연수를 하나로 만듭니다.**

연수1동



연수1동, ‘비류마을 지킴이’ 환경정화 활동

비류마을 지킴이 사업은 자발적 주민 참여 활동으로, 연수1동 행정복지센터 협조하에 마을환경 개선, 보존 지킴이 등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1시에 시행하는 정기적 환경정화 활동이다. 비류마을 내 고질적 환경 문제였던 마을 정자 앞 등산로 입구, 백제 우물터 앞을 중심으로 생활 쓰레기 정비에 이어갔다. 또한, 비류마을 주민에게 생활 쓰레기 배출 요령 안내 전단지를 배포하여 홍보 활동 또한 이어가고 있다. 이번 비류마을 지킴이의 환경정화 활동은 주민 대다수의 적극적인 봉사와 협조로 연이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족했던 주차 공간 또한 늘어나 다른 시각의 기대효과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

문의 : 연수1동 ☎ 749-6172

옥련2동



옥련2동 주민자치회, 가을맞이 우리마을 버스킹 공연

옥련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0월 30일 송도석산힐링공원에서 우리마을 버스킹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공연은 작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행사로 애초 옥련문화한마당 개최 시 청소년 버스킹 공연으로 계획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버스킹 공연으로 대체 및 축소 개최됐다. 주민자치회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좌석 간 거리두기, 발열 체크를 실시했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관한 캠페인도 진행했다. 옥련2동 주민자치회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한 이번 공연이 주민에게 작은 치유의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 옥련2동 ☎ 749-6063

연수3동



연수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가정에 영양 가득 선물꾸러미 지원

연수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 후원으로 관내 저소득층 100세대 가정에 ‘영양 가득 선물꾸러미(양념소불고기, 채소, 쌈장)’을 전달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인 2020년 기부금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해 선정된 사업으로 지정기탁금 300만원으로 진행됐다.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라고 전했으며, 연수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가족 간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문의 : 연수3동 ☎ 749-6251

송도3동



송도3동, 송명초 학생들로부터 응원 메시지 받아

송도3동은 지난 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 방역과 감염 예방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 송명초등학교 학생들이 마련한 감사의 손편지와 수면 양말을 전해 받았다. 이번 편지 전달은 송명초등학교 ‘토닥토닥 마음을 나눠요’ 캠페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교사와 학생들이 동참했다. 손편지에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등의 응원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감사수 송도3동장은 “어린이들의 응원 메시지를 통해 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꼈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송도3동 ☎ 749-6773

구청 소식



주민 참여형 ‘마을 환경 관리인 제도’ 확대 시행

연수구가 지난 10월부터 주민 참여형 ‘마을 환경 관리인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마을 환경 관리인이란, 소단위로 구성된 마을 현장에서 쓰레기 배출과 분리수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미화원과 협력하여 정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역 주민들과 협의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의 동참을 끌어내는 환경지킴이다. 기존 환경 관리는 관의 주도로 이뤄진 탓에 맞춤형으로 진행될 수 없었던 단점을 극복하고자 민·관이 협동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한다. 지역 주민 위주의 자율적인 환경 정비 시스템이 구축되어 생활폐기물 감량과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향상에 큰 이바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다.

문의 : 자원순환과 ☎ 749-7855

What works for Citizenship Education

Professor Bryony Hoskins, University of Roehampton, London

그리스 라리사 시와 세계시민교육 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 개최

연수구가 지난 12일, 13일 양일간 유네스코평생학습연구소(UIL)과 그리스 라리사 시와 공동으로 유네스코 GNLC ‘세계시민교육 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사회에서의 시민교육 강화’를 주제로 전문가의 연설과 함께 국내외 도시들의 시민교육 성과와 도전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시민교육 증진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인권, 민주주의, 취약계층, 지속 가능한 환경, 청소년 등의 소주제로 세계 석학들의 기조연설과 클러스터 회원 도시의 사례 발표, 유스 포럼, 클러스터 회원도시 플래닝 세션으로 구성되어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가 펼쳐졌다. 클러스터는 웰빙, 모니터링 등 모두 7개 영역으로 나누어 전세계 학습도시의 평생학습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의 테마 구축 사업이다.

문의 : 평생교육과 ☎ 749-7274

코로나19 극복 연수E음 혜택+ 추가 캐시백 연장

연수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연수E음 혜택+ 추가 캐시백 적용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연수E음 카드로 연수구 혜택+ 점포를 이용할 경우 인천시가 최근 연장 적용한 10%의 기본 캐시백에 연수E음 혜택+ 추가 캐시백을 포함해 매달 5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까지 20~24%의 할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가맹점이 1천 호를 돌파하며 현재 연수구에는 다양한 업종의 연수E음 혜택+점포가 늘어가고 있다.

문의 : 경제지원과 ☎ 749-7794



의정 소식



연수구의회 「문화사랑방」 운영(의회건물 1층)

운영시간 | 09:00~17:00(평일)

이용대상 | 연수구민 누구나

운영내용 | ·법령집 및 의정활동 관련 자료 비치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각종 잡지 및 정기간행물, 각종 도서 비치

·안락한 소파형 의자와 탁상을 구비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및

담소 공간 제공

문 의 | 의회사무국 문화사랑방 ☎ 749-6764

※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회방청 및 견학 신청

개인신청 | 방청 및 견학 전일까지 전화신청

단체신청 | 방청 및 견학 7일 전까지 공문

또는 전화신청

방청절차 | 신분증 제시 후

방청권 수령·패용 후 방청

문 의 | 의회사무국 ☎ 749-8372

※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3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개최

연수구의회는 지난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3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구의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를 진행하였으며,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연수게시판

연수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주민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환경 environment



모으면 자원이 되는 종이팩·폐건전지 교환창구

종이팩·폐건전지 교환창구 운영 안내

운영시간 ①수요일 : 10:00~11:30 연수구청 지하1층 종량제 봉투 판매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미 운영)
②수요일 오전 이외 방문 시 : 09:00~18:00
연수구청 5층 자원순환과(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대상품목 종이팩류(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등), 폐건전지

교환방법 ①종이팩 종이팩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이물질을 제거하고 건조하여 방문

②폐전지 폐전지류를 봉투에 담아 사전에 개수를 파악하여 방문

종이팩·폐건전지 교환 연말 EVENT (20.10.19. ~ 재고 소진시까지).

※종이팩·폐건전지 교환 비율 완화!

기존	변경
종이팩 1kg ↔ 각티슈 1개 종이팩 2kg ↔ 종량제봉투 1장(20L) 폐건전지 10개 ↔ 새 건전지 1개	종이팩 1kg ↔ 각티슈 2개 종이팩 1kg ↔ 종량제봉투 1장(20L) 폐건전지 10개 ↔ 새 건전지 2개

문의 자원순환과 ☎ 749-7873

무색페트병 분리배출 안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변경되어
2020. 12. 25.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먹는 샘물, 음료)의
별도배출이 전면
시행됩니다.



문의 자원순환과 ☎ 749-7872



행정 administration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안내

기간 2020. 11. 13.(금)부터
부과대상 집합제한시설의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과태료	위반당사자 : 10만 원 관리·운영자 :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대상시설	집합제한 조치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불안정	망사형·벨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형태는 불안정

부과대상

예외자	만 14세 미만, 뇌병변, 발달장애인 의학적 소견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예외사항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문의 질병관리과 ☎ 749-8147

연수구 적극행정 공무원을 직접 찾아 주세요!

추천대상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한 연수구 공무원
※ 단순히 민원에 친절하게 대응한 사례 등은 제외

추천방법 연수구 홈페이지
(www.yeonsu.go.kr) →
참여·알림→ 적극행정→
‘추천합니다’ 게시판 →
본인인증 후 글 작성

추천활동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

문의 기획예산실 ☎ 749-7085



2020년 11월 30일

송도5동행정복지센터 청사가 이전됩니다.

송도4동행정복지센터 건물(컨벤시아대로230번길 42, 아라프라자 3층)에
있던 송도5동행정복지센터 청사가 이전될 예정입니다.

송도5동 개요

청사위치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501(송도동 317번지)
이 전 일 2020. 11. 30.(월) 예정
업 무 통합민원, 사회복지 등 모든 동 행정업무
상세내용 인감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관할 동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고유 업무는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 의 송도5동 ☎ 749-6980

코로나19 안전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신고대상

- ①집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서 영업이나 모임을 하는 경우
- ②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경우
- ③고위험시설·모임
- ④출입자 관리,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이
반복적·복합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 ⑤특정장 시설, 사업장 영업, 집회·모임 행위 등으로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경우
- ⑥기타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신고방법

- ①앱 ‘안전신문고’ 다운 → ‘코로나19 신고’ 탭 클릭 → 신고내용 작성 및 제출
- ②웹 ‘안전신문고’사이트 접속 → ‘안전신고’ 탭 클릭 →
‘코로나19 신고 관련 여부’ 체크 → 신고내용 작성 및 제출

※ 코로나19 제도개선 제안은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안전신문고 포털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신고절차

- ①안전수칙 및 행정명령 위반행위자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위반 당시
사진(얼굴포함)과 위반장소(거주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②위치찾기 기능으로 안전수칙 및 행정명령 위반 현장,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 또는 위반(거주)장소 지정
- ③신고내용에 위반시설 종류(상호명칭 등), 상황, 내용 및 무단이탈자의
인적사항, 위반(거주)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 입력
- ④제출 버튼을 선택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며, 코로나19 안전수칙 및
자가격리 등 관리기관(담당자)의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됨
- ⑤조치결과는 신고인에게 스마트폰 알림,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로 통보

인천시민의 편리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하여 2020. 12. 31.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됩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큐알코드로 확인하세요.



육아 parenting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모집

교육명	교육시간	교육대상	강의실
[인천형 부모교육] 仁아놀자	2020. 12. 2.(수), 9.(수) 10:30~12:30	연수구 관내 영유아 자녀를 둔 양육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옥련점
[인천형 부모-자녀체험] 안독이와 함께 배우는 아이사랑안전 (스마트폰안전)	2020. 12. 2.(수), 9.(수) 16:00~17:10	연수구 관내 14~15년생 유아와 양육자	
클로버 부모-자녀체험	2020. 12. 16.(수) 15:30~16:40 16:50~18:00		

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www.ys-scc.com) → 회원가입 →
프로그램누리기(상위탭) → 교육신청 → 해당강좌 Click →
신청하기(선착순 접수)

문 의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 ☎ 715-8262

※교육 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수구 임신부 마더박스(Mother Box) 지원

지원대상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연수구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급내용 15만 원 상당의 출산준비용품 5종(택1)
수령방법 신청자가 요청한 장소로 택배 배송
신청방법 연수구 보건소 및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임신부
등록 시 즉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문 의 출산보육과 ☎ 749-7733

양육상담

양육상담 2020년 11월~12월(상시 운영)
모집대상 연수구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장 소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감돌
내 용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영유아 발달, 기질 등
문 의 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 ☎ 715-8262



복지 welfare



취약계층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공공재활병원으로 취약계층에게 ‘재활치료비지원(해피라이프)사업’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입원 환자 중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①당연선정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료급여1종) ②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등록 장애인 ③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
지원한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항목	입원 기간 내 발생한 진료비 및 입원비 ※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상급병실료, 영양제, 간병비 제외)
지원절차	①사회사업실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②서류 심사 후 선정 대상자에 한해 상담 진행 ③1차 심사 후 최종 의료비지원 결정
지원절차	①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②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해당자) ※ 상담 후 추가서류 요청 가능: 부채증명서, 급여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문의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 899-4351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연수구 1년 이상 주민등록 된 자
지원내용	틀니·임플란트(2대) 시술 시 본인부담금(급여대상) 지원 ※ 2019.1.1. 이후 시술 신청자
신청방법	①의료급여수급자 시술 전 틀니·임플란트 신청서 제출 → 시술 완료 후 본인부담금 납부 → 본인부담금 신청 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시술 완료 후 본인부담금 납부 → 본인부담금 신청 ※ 시술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구비서류	①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신청서 ②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진료비계산서(급여 내역서), 영수증) ③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④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연수구청 사회보장과 ☎ 749-7695
신청장소	
문의	

안전 safety
한파 국민행동요령

한파 사전준비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한파와 관련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알아두고, 본인과 가족의 저체온증 등 증상을 확인합니다. 한파 예보에 맞춰 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한파 발생 시

야외활동은 되도록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으로 노출 부분의 보온에 유의해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은 피하도록 합니다. 또한 당뇨병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미리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빙판길 낙상사고 줄이는 요령

보폭을 평소보다 10~20% 줄인다. / 굽이 낮은 미끄럼 방지 밑창 신발을 신는다. / 옷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는다. / 가능한 한 손에 물건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 응달진 곳을 피하고, 급격한 회전을 하지 않는다. / 움직임을 둔하게 하는 무겁고 두꺼운 외투는 피한다. / 넘어질 때는 무릎으로 주저 앉으면서 옆으로 굴러 피해를 최소화한다.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상담 110 /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대처사항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DECEMBER
12

2020 Yeonsu Cultural Center Club Special Exhibit

Date & Time: 10:00 - 17:00, December 11 (Saturday) - December 18 (Friday), 2020
Venue: Yeonsu Gallery (1F, Yeonsu-gu Council)
Exhibit Details: Exhibit of Yeonsu Cultural Center clubs' creative works including photography, letter-carving, calligraphy, watercolor, folk painting, literary painting, and ceramics
Admission Fee: Free
Admission: Freely visit and enjoy the exhibit during the council opening hours.
Inquiries: Yeonsu Cultural Center ☎ 821-6229



Year-End Events at Yeonsu Public Libraries

Event Period: December 1 (Tuesday) - December 24 (Thursday), 2020
Content: Various events such as exhibits, lectures, and experience programs
Venue: Yeonsu Cheonghak Library, Songdo International Children's Library, Haedoji Library, Seonhak Byeolbit Library, and Hambak Biryu Library
Registration Period: Sequentially by event from November 24, 2020 (Tuesday)
Registration: Yeonsu Public Libraries Website > Culture Madang > Cultural Events (<http://www.yspubliclib.go.kr/>)
Inquiries: Library Policy Division of Yeonsu-gu Office ☎ 749-8264

The 14th Hee Hee Nak Rak Book Concert:
Dr. Lee Si-hyung's Immune Revolution

Date & Time: 19:00 - 21:00, December 29, 2020 (Tuesday)
Eligibility: 100 residents
Content: Dr. Lee Si-hyung, the author of Immune Revolution, presents a lecture on health care to protect us from COVID-19 and an autograph session.
Venue: 4F, Culture Hall, Square 1
Registration Period: Sequentially by event from November 24, 2020 (Tuesday)
Registration: Yeonsu Public Libraries Website > Culture Madang > Cultural Events (<http://www.yspubliclib.go.kr/>)
Inquiries: Library Operation Support Team, Library Policy Division ☎ 749-8264

※The above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circumstances related to COVID-19.

Friday Art Stage #PlayingYeonsu <Little Musician>

Date & Time: 19:30, December 18, 2020 (Friday)
Venue: Yeonsu Art Hall (B1, Yeonsu-gu Office Building)
Artist Lineup: BRUSH Theatre
Performance Details: A family music drama adapted from the Uzbek fairy tale "Little Musician" with various sound effects and musical instrument performances!
Rating: 3 years of age and older
Reservation: Online (Yeonsu Cultural Portal website)
Host / Organizer: Yeons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Sponsor: Yeonsu-gu
Inquiries: Yeons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 070-4169-6457, 9
※Depending on circumstances related to COVID-19, Yeons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YSFAC) performances may be moved online, and the schedule and venue are subject to chang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heck the notice on the YSFAC website.

Yeonsu Cultural Center's Cultural School
Application for the 2020 Winter Semester

Program Period: From January 2, 2021 (Saturday, end date differs by course)
Programs: About 100 programs including visual, performance, tradition, and humanities integrated art courses
Registration Period: From December 1, 2020 (Tuesday) until seats are filled
Venue: Yeonsu Cultural Center (2F, Cheonghak Cultural Center)
Registration: Online (Yeonsu Cultural Portal website: www.yeonsu.go.kr/culture) and on-site
Inquiries: Yeonsu Cultural Center ☎ 821-6229



Seonhak Byeolbit Library Theme Madang

Program	Date & Time	Venue	Note
Saturday Byeolbit Theater	14:00, December 5 & 19 (Saturdays)	4F, Planetarium	Astronomical dome film screening
Saturday Constellation Tour	15:00, December 5 & 19 (Saturdays)		Constellation description + short dome video

Inquiries: Library Policy Division of Yeonsu-gu Office ☎ 749-6713

※The above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circumstances related to COVID-19. Only 1/2 of all seats are available.



12

문화가 꽃피는 연수의 꿈이 현실이 되다

글·사진 김일형 연수한마당 기자



연수문화재단 창립 1주년 기념 공연



전통 판소리 연구자이자 소리꾼 이봉근과 하우스밴드 적벽이 지난 10월, 연수의 마지막 밤을 열었다. 연수동 문화공원에 마련된 양중맞은 텐트 관람석에서 전통 음악이 현대 음악과 만나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는지 설렘 반 호기심 반으로 지켜보았다. 연수문화재단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공연이었다.

기념 공연에 앞서 10월 28일부터 연달아 제4차 연수문화도시포럼(문화 동행 거버넌스,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문화 다양성 특강(디아스포라 영화제 이야기), <바디콘서트>, <송도 2동 마을 축제: 나도 쯔! 놀고 싶다!> 같은 다양한 문화 행사도 있었다.

연수문화재단은 코로나19를 고려해 안전을 우선으로 두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 지난 1년간 지역 주민의 삶에 다가가는 문화 활동을 이어왔다. 구민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발코니 음악회>, <송도 석산 자동차 극장> 운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존에 있던 금요예술무대와 토요일문화

마당을 더욱더 알차게 꾸렸다. 아울러 미술가들의 공공 미술 작업을 비롯하여 지역 예술가와 예술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송도2동 마을 축제를 지원하고 옥련 문화 마을사업을 기획했다. 지금은 구석진 연수 고가 지하보도가 '507 문화 벙커-생활문화센터'로 탈바꿈하고 있다. 연수구 예술 문화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할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나아가 법정문화 도시지정 사업까지 신청했다고 한다.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과 뒤에서 힘껏 지원하는 구민들의 뜻이 한데 모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어려운 시기에 문화가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럴 때일수록 '나' 개인에게, '우리'라는 공동체에 대해 정체성을 묻고, 어떤 도시에 살고 싶은지, 물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면 어떨까. 삶 속에 스며든 문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변화를 원동력으로 '내가', 나아가 '우리가' 꿈꾸는 삶을 어떻게 현실로 꾸릴지도.

Written by Choi Yoo-jung, Yeosu Hanmadang Reporter

EXPLORING GLOBAL CULTURE AND EDUCATION

Yeosu-gu boasts the reputation of an international city and is well-equipped with global educational and cultural facilities. Promoting the international education-specialized district project, Yeosu-gu has also provided engaging foreign language programs from different institutions.



INU Global Language Culture Academy: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Experience Classes

The Academy, which provides Incheon citizens opportunities to learn foreign languages, offers Korean, English, and Chinese courses. The INU Language Center operates Korean language training courses for non-Koreans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centers. In particular, through partnerships with universities in China, the center runs the Confucius Institute, which offers Chinese language programs. Foreigners who want to speak Korean more fluently can take the long-term Korean language study course. This course consists of intensive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cultural experience classes.

<169, Gaetbeol-ro, Yeosu-gu, For more information, visit the Academy website (www.inu.ac.kr/mbshome/mbs/inu/global_intro.jsp). 835-9868-9>

Incheon Global Campus (IGC): Prestigious Overseas Universities Nested in Songdo

The Incheon Global Campu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and Incheon city in 2012, has continued to grow year after year. This campus is shared by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SUNY Korea), 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Mason Korea), Ghent University Global Campus, and The University of Utah Asia Campus. At the campus's PR center, you will find visual material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each university. The universities' logo products on display and sold at the gift shops are always popular among students and visitors. Students who dream of going to one of the universities on the campus can visit a lecture on Experience Day, held twice a year.

<119 Songdomunhwa-ro, Yeosu-gu, 626-0114>

Songdo International Children's Library: Foreign Language Reference Materials and Audio Books in Multiple Languages

Songdo International Children's Library provides foreign language specialized books and educational programs. The foreign language reference room on the second floor of the library holds 28,000 foreign books, including materials in English, Japanese, and Chinese, as well as magazines in various foreign languages. Users can also download audiobooks of Vietnamese, Cambodian, and Russian fairy tales for free. English films are shown at 3pm on Sundays, and experience programs in English are also available.

<43, Convensia-daero, Yeosu-gu, closed on Mondays and public holidays, 10am - 6pm on Tuesdays, Wednesdays, Fridays, Saturdays, and Sundays, 10am - 8pm on Thursdays, 749-8220>

Songdo Librar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 Variety of Reference Materials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oreign Books

G Tower located in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IFEZ) houses the Songdo Librar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and 13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library has English references on diverse UN organizations, including the Green Climate Fund (GCF),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and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DRR). You can check the Yearbooks of the United Nations from 1946 and about 600 references from different U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foreign books section. Foreign books are also available for adults age 18 or older to borrow.

<2F, G Tower, Central Park Station Exit 3, for ages 18 and over, 9am-6pm on weekdays, 851-6550>

Global Programs that Combine Learning and Experience



Yeosu Foreign Language Open Center: his foreign language learning space, open to citizens who want to develop global communication skills, provides English and Chinese learning programs for children and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for adults. (www.yeosu.go.kr/lll/edu/foreign_info.asp)



Yeosu Global Language Education Center: The village-level educational community system provides global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grams such as English for children and Chinese and Spanish for adults. (www.yeosu.go.kr/yglec)



Songdo Global Lifelong Learning Center: The Center provide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uch as cultural programs (ex. World LAN Trip) and gourmet programs for learning worldwide recipes. (www.yeosu.go.kr/lll/edu/songdo_request.asp)



이달의 문화마당

12

연수구립공공도서관 연말행사 개최

행사기간 2020. 12. 1.(화)~12. 24.(목)
내 용 전시, 강연, 체험 등 다양한 행사 진행
장 소 연수청학, 송도국제, 해돋이, 선학별빛, 함박비류도서관
접수기간 2020.11.20.(금)부터 행사별 순차 접수
접수방법 연수구립공공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마당 > 문화행사 (<http://www.yspubliclib.go.kr/>)
문 의 도서관정책과 ☎ 749-8264

연수가족문화한마당 <안녕, 눈사람>

일 시 2020. 12. 12(토) 14:00~15:00
대 상 어린이 및 가족
방 법 유튜브 채널
내 용 사람보다 더 따뜻한 눈사람 평판과 순수한 소년의 우정 이야기
신 청 2020. 12. 4.(금) 09:00~ (연수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문 의 연수도서관 ☎ 899-7543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전시 안내

전 시 명 신진(청년)작가 날개달다 2020展
청년작가 12. 2.(수) ~ 12. 10.(목) 10:00~18:00 (일요일, 공휴일 휴관)
장 소 갤러리 「나무」
관 람 료 무료
대 상 인천시민
장 르 복합
문 의 기획·정보부 문예팀 ☎ 899-1516

※ 상기 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으며, 기관 및 기획사(작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lec.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희희낙락 북콘서트 : 이시형 박사의 「면역 혁명」

행사일시 2020. 12. 29.(화) 19:00~21:00
대 상 지역주민 100명
내 용 「면역 혁명」 이시형 박사의 코로나19 이겨내는 건강관리 강연 및 사인회
접수방법 연수구립공공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마당 > 문화행사 (<http://www.yspubliclib.go.kr/>)
장 소 스퀘어원 4층 문화홀(연수구 청능대로 210)
접수기간 2020.11.26.(목)부터 선착순 접수
문 의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지원팀 ☎ 749-8264

2020 연수문화원 동아리 기획전

일 시 2020.12. 12.(토)~12. 17.(목) 10:00~17:00
장 소 연수갤러리(연수구의회 1층)
내 용 서각, 서예, 수채화, 사진, 민화, 문인화, 도자기 등으로 구성된 연수문화원 창작 동아리의작품 전시회
참 가 비 무료
관 람 자유롭게 방문 관람
문 의 연수문화원 ☎ 821-6229

2020년 연수문화원 겨울 학기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교육기간 2020. 12. 22.(화) 부터~강좌별 상이
프로그램 시각, 공연, 전통, 인문 통합 예술 강좌 등 120개 진행
장 소 연수문화원(청학문화센터 2층)
접수기간 2020. 12. 1.(화) 10:00~선착순 마감
수강신청 연수문화포털(www.yeonsu.go.kr/culture) 접수 및 방문접수
문 의 연수문화원 ☎ 821-6229

금요예술무대 #플레이잉연수 <리틀뮤지션>

일 시 2020. 12. 18.(금) 19:30
장 소 연수구청 지하 1층 연수아트홀
단 체 브러쉬씨어터
내 용 그림동화 '작은악사'를 원작으로 다양한 음향 효과와 악기를 가미한 가족음악극
관람연령 3세 이상
예매방법 온라인 예매(www.yeonsu.go.kr/culture)
주최·주관 연수문화재단
후 원 연수구
문 의 연수문화재단 ☎ 070-4169-6457, 9

※연수문화재단의 공연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되거나 일정 및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수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천도시역사관 2020 <도시를 보는 작가>전 3회 전시

전 시 명 로드 뷰(Road View)
일 시 2020. 11. 17(화) ~12. 13(일)
장 소 인천도시역사관
참여자 최영 작가
내 용 작가가 이주를 반복 하며 경험한 도시들의 이미지를 담은 회화 및 판화 전시
문 의 인천도시역사관 ☎ 850-6030, 6026



연수구립공공도서관 영화마당 운영

매주(토) 15:00		
구 분	장소	문의
연수청학도서관	지하1층 공연장	749-8263
해돋이도서관	2층 해돋이홀	749-6950

매주(일) 15:00		
구 분	장소	문의
연수어린이도서관	3층 공연장	749-8200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2층 공연장	749-8220
선학별빛도서관	4층 천체투영관	749-6713

문 의 연수청학도서관 ☎ 749-8264
 ※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변동가능. 좌석 1/2만 착석가능

선학별빛도서관 테마마당 운영

구 분	일시	장소	비고
토요일별극장	12. 5.(토) 12. 19.(토) 14:00	4층 천체투영관	천문동영화 상영
토요일별자리여행	12. 5.(토) 12. 19.(토) 15:00		별자리 설명+ 단편 동영상

문 의 도서관정책과 ☎ 749-6713
 ※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변동가능. 좌석 1/2만 착석가능



모든 프로그램 및 행사는 코로나19 추이 및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역주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 ※ 감염병 예방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탄생,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을
마음껏 뽐내주세요!

응모방법

- + 연수구 공식SNS(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를 팔로우한다. 페이스북 @yeonsulife / 인스타그램 @togethereonsu
- + **본인 계정**에 아기사진과 함께 **#연수한마당**을 해시태그하여 업로드한다.
- + 페이스북 메시지 또는 인스타그램 DM으로 아래 내용을 보내면 신청 완료!
아기 이름, 성별, 생년월일, 아버지 어머니 이름, 연락처, 주소(상품권 받으실 곳)
- + **아기탄생 기념 축하사진**을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테마사진 : 사랑스러운 아기들



조은우(남)
2020. 07. 28



아빠 조유철
엄마 황수현

다가오는 100일을 앞두고 셀프 스튜디오에서 100일 기념 촬영♥
오후 7시에 촬영했음에도 너무 예쁘게 찍은 은우 칭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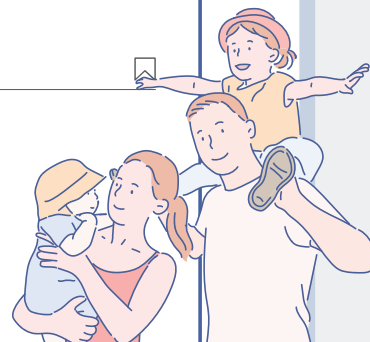


김금동(남)
2020. 04. 19



아빠 김기범
엄마 홍서연

#쥘띠아기
#첫나들이



코로나19 예방, 유모차 소독기 이용하세요~!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 대형 장난감 등 다양하게 소독 가능

설치장소

선학동 선학별빛도서관

옥련동 옥련1동 행정복지센터,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

청학동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연수청학도서관, 연수구 보건소

연수동 연수1동 행정복지센터, 연수2동 행정복지센터,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

동춘동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연수구청점, 동춘1동 행정복지센터,
동춘2동 행정복지센터, 연수어린이도서관

송도동 송도1동 행정복지센터, 송도2동 행정복지센터,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해운도서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문의 출산보육과 ☎ 749-7732

※ 설치장소 확인 웹 : <http://yeonsumap.raonhosting.com/html/>
(연수구 테마지도- 육아도우미지도 탭)

2020년도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안내

지원대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지원금액

월 500천 원(최대 6개월까지)

지원조건

(①,②,③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육아휴직자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육아휴직급여의 특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달부터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 월 익월 20일(계좌입금)

구비서류

지원시기

문의

출산보육과 ☎ 749-7732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다른 연수를 찾아라!

연수구의 멋진 전경이 담긴 사진 속 **다른** 부분 5곳을 찾아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4명의 독자분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PHOTOGRAPH BY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4명의 독자분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 방법 | yeonsuhanmadang@korea.kr (정답사진, 연락처, 주소 명기) 응모 기한 | 2020년 12월 10일까지

문의 | 홍보미디어실 ☎ 749-7402

지난호 당첨자



김미애 (벚꽃로)



박하임 (송도문화로)



지선 (선학로)



최윤숙 (송도문화로)